

LG하우시스, 돌연 자금난 심화?

LG화학, 청주 토지·건물 855억원 매입 ... 납득할만한 이유 없어

LG화학은 계열사인 LG하우시스로부터 충북 청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855억원 상당(감정평가액)의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10월21일 공시했다.

LG화학은 “정보전자 부문 전략의 효율적 실행과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선제투자 등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 분사 이후에도 청주공장에 LG하우시스와 함께 있었다”며 “해당 토지와 건물은 정보전자 사업 확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2009년 정보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인 LG화학과 벽지, 장판 등 산업자재 부문의 LG하우시스로 분할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